

7/22(금) 아가 1-4장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

아가서는 두 종류의 친밀함을 다룹니다.
하나님과 친밀함, 남녀 사이의 친밀함.
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밀착된 관계입니다.

아가서는 <유월절> 절기 때 낭독된 책입니다.
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억하는 절기였지만(출12:24-28),
시간이 흐르면서 본래 정신을 잃고 제도화 되어갔습니다.
생생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.

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후에 아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.
아가서는 여인과 사랑하는 이의 <대화>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일방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<사랑의 대화>입니다.
그들은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애뜻한 사랑을 회복하며,
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

눈을 맞추는 사랑(1:15), 내가 그 안에, 그가 내 안에(2:16, 6:3),
둘인 듯 하나인 충만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(요15:5, 계3:20).
확실한 사랑 안에 <옛 나>는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(1:5).
여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(6:8-9),
귀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(1:11).

하나님은 유월의 구원으로 확실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(출12:13).
예수님은 유월절, 죽음을 불사하는 십자가 사랑으로
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(롬5:8).

“(8:6-7)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...
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
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”
“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
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(롬8:35)”

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?

예배/예식/설교/책으로 알고 접하는 공적이고 먼 관계입니까?
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며 헤아리는 사랑의 관계, 친밀한 관계입니까?